



Feliz Ano Novo!

(Happy New Year!) 브라질! (上)

우리에게 브라질은 축구, 아마존 밀림, 열정의 삼바축제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 4위의 비행기 수출국이며 자동차 수출 세계 10위의 국가 역시 브라질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진 국가 브라질. 이번 호에서는 브라질의 국가 및 시장 특성 및 IT 시장에 대해 알아 본다.



남미를 주도하는 브라질

브라질은 남미대륙의 43%를 차지하는 영토를 바탕으로, 기존 남미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금년 5월 베네수엘라가 포함된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지도국가로 남미의 정치·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MERCOSUR 회원국 간에는 무관세

또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브라질에 진출하는 것은 남미 전역에 진출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인근 국가들과는 달리 포르투갈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영어가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2003년 룰라 정부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대외신뢰도 향상과 수출호조, 외국인투자 확대 등에 따라 환율 및 이자율이 하향안정세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대선에서 현 룰라 대통령이 재당선되어 향후 정치적·경제적 상황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국민의 성향은 낙천적 기질이 두드러진다. 천혜의 자원을 향유하면서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크다. 그러나 중남미 최대의 경제중심지라는 상파울루와 세계 3대 미항이라는 리오 데 자네이로 등 대도시에서는 종종 치안공백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최근 UN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의 최고 부유층이 GDP 16%를 점유하며, 상위 10% 인구인 부유층이 GDP의 49.8%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최하위 10%의 극빈층은 GDP 0.7%

만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빈부격차는 대도시의 극빈층에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표적시장을 절대 구매력을 가진 부유층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절대 다수를 접하는 중하위층에 맞는 제품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업무에 관한 한 철저히 서구화되어 모든 것이 문서로 진행된다. 조금이라도 중요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문서화하는 것이 브라질의 관행이다. 또한 인맥중시성향도 빼놓을 수 있는 브라질 사회의 특징이다. 정재계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가 인맥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사업 진출 시 해당 시장에 영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강하박형 산업구조

브라질의 인구는 1.9억 명, 면적은 851만km², 인구 1백 만명 이상의 도시가 11개에 달하는 규모로 중남미 국가 중 공업화 수준이 가장 높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남미 최대 시장이다. 다국적기업 진출 확대로 항공기, 자동차 공업 등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편 부품공급을 담당할 중소기업의 미발달 및 첨단기술 제품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 기피로 미발달되어 상강하박형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보호 차원에서 완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언급했듯이 극심한 빈부격차로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로 구성된 사회특성상 지역별로 특성이 상이하다. 실제 동남부의 상파울루에는 이태리계, 유대계, 시리아·레바논계 및 한국, 일본, 중국계가 주류이며 동북부의 바이아는 포르투갈계 및 흑인이 주요 사회구성원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 덧붙여 세계 최고수준의 이자율로 D/A(인수도 조건인受渡條件)등 외상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브라질의 생산 및 수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아이템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위 커피, 사탕수수, 오렌지, 소고기, 닭고기, 청바지원단 수출
- 2위 철광석, 대두 생산, 트럭수요
- 3위 음료수 생산 소비, 제화 생산
- 4위 항공기, 코코아, 돼지고기 생산
- 5위 고무, 가솔린, 망간 생산
- 기타 화장품소비 6위, 철강생산 8위, 자동차 생산 10위

브라질 IT 시장 개요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IT시장이며,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시장 중 하나인 동시에 세계 5대 성장 시장 중에 하나이다. 무선전화 회선수는 1997년 450만 개에서 2002년에는 3,509만 개로 무려 680%나 증가했으며, 2006년 11월 현재 9,660만 개로 1억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무선전화가입자의 수는 2003년 8월을 기점으로 유선전화 가입자를 능가하였다.

인터넷 인구는 유엔이 2005년 11월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200만 명으로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인터넷 보급 확산과 더불어 PC 보급대수도 1998년 437만 대에서 2004년에는 1,900만 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국민PC보급정책에 의한 각종 세제혜택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저가 PC는 2006년에 약 650만 대, 2007년에는 약 850만 여 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 호에는 브라질 진출시 유의점을 담은 'Feliz Ano NoVo! 브라질 ㉠'가 연재됩니다.

지 부 소 식

INKE 브라질 지부는...

브라질 지부는 지난 9월 27일에 발족한 INKE의 막내로 활동을 개시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었다. 당초 거리적·시간적 격리감과 그동안 일부 잘못된 거래에서 발생하였던 불미스러운 사례를 지양하기 위하여 한·브라질간의 건실한 교량 역할을 하자고 의기투합해온 몇몇 모임들이 모여 INKE 브라질지부로 조직을 구성했다.

회장 Arimex Int'l (종합컨설팅회사) 황보덕 사장

부회장 Commax (보안장비전문회사) 김성훈 사장

감사 Infinite Ltda.(의료장비수입회사) 장수영 사장

이외 한인 이민 1.5세와 2세인 젊은 벤처 기업 7개사 및 한국으로부터 IT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브라질 기업인 3명

Arimex Int'l은 브라질 비즈니스의 생생한 현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Brazil Report'를 주 2회 e-mail로 회원사들에게 발송한다. 이 리포트의 일부는 KIEP가 운영하는 BRICs Information Center (www.bricsinfo.org)에 게재되고 있는데, 브라질 진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